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
2023년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뉴질랜드 유보통합과 통합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해외 연수를 마무리 하며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지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9일의 여정으로 뉴질랜드 유보통합과 통합교육 선진정책과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뉴질랜드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기간 중 긴밀한 협조를 해주신 연수 위원 및 모든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 일정은 뉴질랜드 남섬 퀸즈타운 옆 애로우타운의 프라이머리 스쿨, 크라이스트처치 케이스브룩 중학교, 유보통합을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그리고, 북섬의 그린베이 스쿨 등을 중심으로 시찰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남섬 퀸즈타운과 애로우타운은 19세기에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현재까지도 버킹엄 스트리트 등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예전 모습을 지키는 당시의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정돈되어 있었으며 주민들 모두가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은 그동안 우리 전북도 내 학교와 전혀 다른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평온한 성향에 따라 학생들 역시 스스로가 안전과 학교 주변 환경을 지켰고, 아동 즉, 유보통합의 근간인 교육과 보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였습니다.

유보통합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 전북 등은 뉴질랜드의 프라이머리 스쿨처럼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누구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정책제언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 케이스브룩 중학교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체계를 구축한 것을 보면서 이번 2023 전북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정

책을 내세워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즉, 온·오프라인 교육을 선진적으로 시작해 지역내 학생 미래의 도전에 자신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수립에 좋은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크라이스트처치는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과 뉴질랜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기념 정자가 홀스웰 퀴리 공원 내 한국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한국전 참전 6,000여 명의 헌신을 기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정자에 새겼고, 이들이 살아 숨쉬는 추모 공간에서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이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뉴질랜드 북섬으로 이동해 그린베이 스쿨을 방문해 통합학교와 관련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프라이머리 스쿨과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직업교육 포함)이 함께 공존해 있었고,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뉴질랜드 통합학교가 우리 전북도 교육현장에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정책과 행정 등을 벤치마킹해 국제 견문을 넓힘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2023 뉴질랜드 해외 연수에서 체험한 좋은 점들을 전북도 교육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전북도의회가 선진 의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3. 5.

연 수 단 장 김 명 지

뉴질랜드 해외연수 다녀와서

-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알다시피, 뉴질랜드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짧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뉴질랜드의 역사라는 것은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역사를 제외한, 영국 본토로부터 이주했던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영국 본토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오늘날 세계인들이 앞 다투어 배우려는 모범 교육도시의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해외 연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행정이 단순한 개발의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전환의 시기에 일찍이 교육정책을 마련한 뉴질랜드 도시들의 선진 교육행정은 전북으로서는 반드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수단이 중점적으로 방문한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과 크라이스트처치 케이스브룩 중학교는 뉴질랜드 교육 발전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특히 과거 40여 년 전부터 교육의 미래 백년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계획을 추진해 선진 교육의 나라로 발전한 뉴질랜드를 본받아 우리 전북의 미래교육 사업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고 오기에는 벅찬 일정이었지만, 최대한 많이 보고 배우기 위한 노력과 열정의 편린이 담긴 이 보고서가 전북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23. 5.

연 수 위 원 박 정 희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 국가 연구 - 뉴질랜드	13
III. 방문기관	23
1. (남섬)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	
2.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케이스브룩 중학교	
3.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4.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홀스웰공원(시설방문)	
5. (북섬) 그린베이 스쿨	
IV. 전라북도 유보통합 관련 연구자료	47
V. 시사점	61
<참고자료>	72
- 방문·귀국 후 유보통합 관계자 의견수렴	

□ 연수동기 및 배경

<유보통합>

- 영유아 대상 보육을 국외에서는 주로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이라는 용어로 지칭함. 이는 보호 없는 학습과 학습 없는 보호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두 용어를 병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이처럼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유아로 동일하고 실질적 서비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국은 이를 실천하는 기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분화된 실정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관할 부처를 기초로 운영됨. 더불어 각각의 설립주체가 국공립과 사립/민간으로 구분되기도 함. 이러한 행정체계, 설립주체의 차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의 차이를 유발함
- 궁극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이용대상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 및 교육의 질 차이를 야기 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긴요함
-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나 유보통합 이전에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차이 해소와 안정적인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이 필요함

- 따라서 본 뉴질랜드 해외연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유아와 그 가족’이라는 동일한 대상에게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재 이원화된 행정체계 상황에서 각 체계가 시행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사업의 현 실태를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통합학교 등 국제교류>

-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역량 통합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 필요성 부각됨.
-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교육과정 개정 등의 교육 변화에 발맞춰 학생 선택권 확대·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 교류·체험 기회 확대가 필요함.
- 국제교류 수업 시범학교 방문을 통한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전북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하는 데 있음.

<국가 학업성취 인증제(NCEA) 관련 이슈, 고교학점제>

- 국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왔음. 그동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학년을 기초로 하는 ‘단위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긴 어려웠음.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시작, 2025년 전국 실시를 앞두고 있음.
- 하지만 고교학점제 전환은 단순히 졸업 요건의 변화뿐만 아니

라 고등학교 운영체제, 대학입시제도, 수업과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등과 맞물려 있어서 고교 현장 도입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뉴질랜드 국가학업성취인증제(NCEA) 운영과 대학 진학 및 취업에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최근 관련 이슈들을 통해 국내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23. 3. 27. ~ 4. 4. [7박 9일]
- 연 수 국 : 뉴질랜드
- 연수대상 : 11명 (명단 별첨)
 - 의 원(8) : 교육전문위원 8
 - 직 원(3) : 전문위원실 3
- 연수주제 : 유보통합, 통합교육, 에듀테크 등 선진교육 견학

□ 연수내용

1)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 증가와 교육 중심의 선진사례 습득

- 최근 ‘유보통합’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이 활발하게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육아 및 돌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모들은 교육 환경, 프로그램, 교육의 질, 교사의 자질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음(나석희, 이현진, 2014)¹⁾.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영유아들의 측면에서는 출발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일관적이고 지속성 있게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기관 환경의 제공이 중요하다(Belfali, 2015²⁾ ; 지성애 외 3인, 2015³⁾)는 점에서 무엇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후 일원화 체계로 전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김병만, 2019: 20)⁴⁾. Kaga, Bennett과 Moss(2010)⁵⁾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전반적으로 교육 중심으로 통합이 진행되었음을 UNESCO 보고서를 통해 밝혔고, European Commission(2011)⁶⁾은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보육과 교육의 통

1) 나석희, 이현진 (2014). 유아교육, 보육통합에 관한 유아교사와 원장의 인식. 아동교육, 23(3), 269-287.

2) Belfali, Y. (2015).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 International trends and policy directions.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한-OECD 유아교육·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자료집. 12-23.

3) 지성애, 홍혜경, 이정숙, 장명림 (2015).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 구축. 유아교육연구, 35(5), 5-29.

4) 김병만 (2019).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유보통합의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 교육혁신연구,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29(2), pp.17-39.

5) Kaga, Y., Bennett, J., & Moss, P. (2010). Caring and learning together: A cross-national study of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to education. Paris: UNESCO.

합을 통해 서비스 질을 발달시키도록 ‘2011 Communication’을 통해 권고함.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 교육으로의 통합이 제안되고 있는 이유는 교육받을 권리, 무상교육, 교육과정에 기초한 실제라는 점, 상대적으로 잘 교육받은 교원 등임. 이는 영유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자라는 인식과 함께 영유아기 교육이 평생학습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임.
- 부모들의 경우는 유아교육 인프라가 복지 분야에 비해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유아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점 역시 교육중심 통합의 원인으로 보고됨(Kaga, Bennett, & Moss, 2010).
- 유보통합은 사회적 문제와 시대에 따라 주도적인 담론의 영향을 받아 방향성이 결정되어 왔음. 유보통합에는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에 특정 집단을 부각시키거나 세계적 흐름 등의 거대 담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통합에 이르기 어려움.
- 담론이란, 개인을 뛰어 넘은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실천 방향성을 내재화하는 것으로써 생성된 담론은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냄(박재우, 2012).⁷⁾ 이에 사회적 목소리와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김병만, 2019: 21).
- 김병만(2019: 32)은 유보통합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빅데이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상위 50개의

6) European Commission (201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viding all our children with the best start for the world of tomorrow. Brussels, 17. 2. 2011. COM(2011) 66 final.

7) 박재우 (2012). 미디어에 나타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9), 434-446.

키워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키워드를 확인하였음.

- 높은 빈도로 제시된 키워드의 주요 내용은 영역별로 ‘이해당사자 관련 요인’, ‘교원자격기준 관련 요인’,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추진 방향 관련 요인’으로 조사됨. 이는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주요 구성원인 교사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과 해당 주체자인 교사의 관심 역시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보통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유보통합과 관련된 많은 개념과 주제들은 상호 분절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유보통합에 대한 개념과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 및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회·시대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구성원의 목소리가 높게 개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김병만, 2019: 33).
-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시적 네트워크 분석결과, 주변의 키워드들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교사, 보육, 유아, 교육, 유치원, 자격증, 취득, 어린이집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교사”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로 나타나 유보통합에 있어 주요 키워드는 “교사”로 회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 결과는 교사의 질이 유보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임(김병만 2019: 33).
-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키워드를 확인한 결과, 교사, 보육, 유아,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과정, 정책, 정부, 답변 등이 높게 나타나 이 키워드들이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보육, 유아,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과정, 정책, 정부, 답변 등의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에 더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와 정책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의미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민주적인 상향식(bottom-up model) 정책 추진이 중요(김병만, 2015, 2017, 2018)⁸⁾하다는 것을 뒷받침함.
- 교사,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정책에 대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관련 키워드들 모두 교육 및 보육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개념과 주제가 매우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울러 핵심 키워드인 “교사”는 모든 개념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되어 유보 통합에 있어 지배적인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교사”와 관련한 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정책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주요한 본질과 흐름이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것임(김병만, 2019: 34~35).
- 따라서 유보통합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유보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본질적인 요구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8) 김병만 (2015). 신자유주의 비판이론에 근거한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 방향 탐색. 생태유아교육혁신연구 제 29권 제2호 & 김병만 (2017).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학부모용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 개발 방향 탐색.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8), 551-560. & 김병만 (2018). AHP 기법을 활용한 학부모용 유아교육정책 평가척도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8(1), 253-272.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이해집단에 따라 유보통합을 바라보는 관점과 영향력이 어떠한지, 유보통합을 통해 긍정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바람직한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 왜 뉴질랜드 학업성취 인증 시스템인가?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학제 비교]

뉴질랜드			대한민국		
학교	학년	만 나이	학교(원)	학년	만 나이
Primary	Year 1	5세	유치원		5세
	Year 2	6세		초 1학년	6세
	Year 3	7세		초 2학년	7세
	Year 4	8세		초 3학년	8세
	Year 5	9세		초 4학년	9세
	Year 6	10세		초 5학년	10세
Intermediate	Year 7	11세	초등학교	초 6학년	11세
	Year 8	12세		중 1학년	12세
High School	Year 9	13세	중학교	중 2학년	13세
	Year 10	14세		중 3학년	14세
	Year 11	15세		고 1학년	15세
	Year 12	16세	고등학교	고 2학년	16세
	Year 13	17세		고 3학년	17세

- 전라북도의 고교학점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고교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탐색함. 해당 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학점제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관리가 2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이 제도가 상당수의 대학교와 기업에의 진출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대입 시험이 존재하는 점 때문이었음.

- NCEA(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 개념
 - 뉴질랜드 교육부 산하 기관 중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뉴질랜드 자격청 (NZQA,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이 Year 11~13(한국 고등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 인증제’임.
- NCEA 평가 방법
 - 4단계 척도:
 - 미도달(not achieved)
 - 도달(achieved)
 - 우수(merit)
 - 탁월(excellence)
 - Year 11의 Level 1 시작 → Year 13의 Level 3까지 진행
 - Level 1 : 교육부에서 공인하는 ‘뉴질랜드 자격 프레임워크’ NZQF*(New Zealand Qualifications Framework)에서 가장 낮은 단계를 의미함.
 - * NZQF : 뉴질랜드에서 고등교육(대학교 이상) 진학이나 취업에 참고되는 자격 체계
 - 각 레벨에서 정해진 학점(Credit)을 취득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음.
 -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결과를 NZQA에 송출하면 자동으로 NCEA의 후보자가 됨.
 - 각 레벨에서 80학점 중 최소 50학점 이상을 ‘우수’로 받아야 좋은 성적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함.
 - 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의 장학금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시험 결과가 NCEA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심화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

○ NCEA의 쓰임

- 장학금 혜택
- 기업 임용자 판단에 사용
- 뉴질랜드나 해외의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사범대학 진학에 사용
- 우리나라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폴리테크닉(Polytechnics, 과학기술전문학교) 진학에 사용

○ NCEA 관련 이슈

NCEA 평가가 마오리, 태평양 학생에게 불공평하게 설계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Evaluation Associates*는 2022년 9월 NCEA 결과 리포트(2022)에서, “디지털 기반의 NCEA 문해력 및 산술 평가가 마오리족과 태평양 청소년들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함. 시험 난이도보다는 평가의 디자인과 디지털 특성이 해당 학생들의 합격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임(이하 내용은 모두 이 보고서에 근거함).

* Evaluation Associates란, 1999년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 설립한 교육 평가 기관임.

아오테아로아(Aotearoa) 지역의 아공가 학습자들의 성과를 제고하여 뉴질랜드 본토 학습자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NCEA 평가 결과에서 마오리족과 태평양계 학생, 빈민가 출신 10대들이 보이는 다른 그룹과의 성취 격차가 다른 평가에서 나타나는 값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태평양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에서 34%, 셈하기에서 35%로 가장 낮은 합격률 보임.
- 마오리 학생들은 쓰기 34%, 읽기 45%의 합격률을 보임.

[이슈 내용]

- 주의력 결핍 장애(attention-deficit disorders)
- 기기 접근에의 어려움(difficulties regarding access to devices)
-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의 다양성(variability in students' digital skills)
- 학생 신경 다양성의 문제(the additional challenges for students with neurodiversity)
- 학습 욕구, 문제 지문 관심도, 평가 방법(learning needs, concerns about the question contexts, the method of assessment used)

- 교사들이 평소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CBT 시험 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음.
- 그 결과, 해당 연구 기관은 아래 내용을 교육 당국에 제안함.

- ☞ 학생들의 종이 시험 선택권 보장을 촉구함.
- ☞ NCEA의 문항 내용이 이민자, 영어 학습자, 태평양 국가 학생들에게 문화적으로 충분히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업무내용
계		11 명	남8 여3	
교육위원회 (8명)	위원장	김 명 지	남	· 국외정책연수 총괄
	부위원장	박 정 희	여	· 유보통합 관련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위원	진 형 석	남	· 유보통합 관련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위원	장 연 국	남	· 유보통합 관련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위원	이 정 린	남	· 국제교류 현황조사 및 인 터뷰 준비
	위원	김 슬 지	여	· 국제교류 현황조사 및 인 터뷰 준비
	위원	한 정 수	남	· 국제교류 현황조사 및 인 터뷰 준비
	위원	전 용 태	남	· 국제교류 현황조사 및 인 터뷰 준비
교육전문위원 실 (3명)	정책지원관	김 승 찬	남	· 연수계획 총괄 및 인솔
	주무관	박 선 주	여	· 연수진행 및 경비집행
	주무관	김 정 수	남	· 연수진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 일정

일자	방문지역	공식 일정	비고
3/27(월)	전주 인천 오클랜드	▶ 도의회 집결 후 출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인천 국제공항 → 오클랜드 국제공항	1일차
3/28(화)	오클랜드 퀸즈타운	▶ 오클랜드 국내선 → 퀸스타운 ▶ (공식 방문) 애로우타운 프라이머리 스쿨 - 유보통합 및 교육환경 관련 ▶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2일차
3/29(수)	퀸스타운 크라이스트처치	▶ (공식방문) 케이스브룩중학교 -국제교류 학교 방문 진행 상황 청취 ▶ 내실 있는 국제교류 방향과 지원방안 논의	3일차
3/30(목)	크라이스트처치	▶ (공식방문)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유·보통합 사례연구 및 자료 수집	4일차
3/31(금)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 (시설방문) 크라이스트처치 홀스웰공원 -홀스웰공원 내 한국공원 관람 ▶ [전문가 초청 간담회] -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장 ▶ 크라이스트처치 국내선 → 오클랜드	5일차
4/1(토)	오클랜드 로토루아	▶ [연수 간담회] -국제교류 협력방안 및 지원방법 논의	6일차
4/2(일)	로토루아 오클랜드	▶ [연수 간담회] - NCEA 사례를 반영한 교육방향 논의	7일차
4/3(월)	오클랜드	▶ (공식방문) 그린베이 스쿨 -유·초·중·고 통합교육 사례 연구 ▶ 전북교육에 적용 가능한 통합교육 논의	8일차
4/4(화)	오클랜드 인천 전주	▶ 오클랜드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 인천 출발 → 전주 도착 후 해산	9일차

□ 개요

- 국 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위 치 : 대양주 남단(오세아니아, 남태평양의 섬, 오스트레일리아 남동쪽)
- 수 도 : 웰링턴(Wellington)
- 인 구 : 약 470만명('18년 Census 기준)
- 면 적 : 27만km² (한반도의 1.2배)
- 기 후 :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20도, 7월 평균 11도)
- 인 종 : 유럽계 70%, 마오리계 16% 아시아계 15%, 폴리네시아계 8%
- 공 용 어 :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 종 교 : 무교(48%), 개신교(13%), 카톨릭(6%)
- 시 차 : 우리나라 시각 +3(서머타임 +4)
- 교 육 : 만 5세~16세, 전국민 의무교육
- 화폐단위 : 뉴질랜드 달러(\$NZ)
- GDP(\$) : 37,400(2012년)
- 정치체제 : 입헌군주제, 단원제, 의원내각제



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 지도

□ 역사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찾은 유럽인은 1642년 남섬 서해안에 도착한 네덜란드의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었다. 그는 이곳을 고향 제일란트의 이름을 따서 '노바젤란디아'라고 명명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이 말의 영어식 번역이다.

타스만 이후 뉴질랜드를 찾은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이었다. 쿡 선장은 1769~1777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답사하였다. 이어 1814년 런던에서 선교사가 와서 그리스도교 교화를 시작하였다. 그 무렵 이곳은 뉴사우스웨일스(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로서, 고래와 바다표범잡이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탕기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부터 뉴질랜드회사, 오타고협회, 캔터베리협회 등을 통하여 각지에서 이민자가 건너오기 시작하였다. 1880년대 초 냉동선이 개발되자 오지에서도 농목업이 발전하였고, 1852년에는 뉴질랜드 헌법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식민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마오리족과 영국 간에 분쟁이 생겼고, 1843~1870년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마오리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영국은 마오리족의 반영(反英) 감정 완화를 위해 힘썼고, 식민지 회의에 마오리족 대표를 참가시키는 등 영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노력을 통해, 1870년부터는 인종분쟁이 끝나고 마오리족의 영국화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마오리족과의 공존관계 설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은 다른 식민지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해법이어서 높

이 평가되고 있다. 그 후 뉴질랜드는 개척이 진전됨에 따라 1907년 영국의 자치국이 되었다가 1947년 독립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때에는 영국 본국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이 되어 참전·활약하였다.

1949년 7월 한국을 정식 승인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한국전쟁) 때에는 총 5,350명이 영국 연방으로 참전하였다. 대한민국과는 1962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또한 1964~72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1951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은 공식적으로 안전보장 조약(ANZUS Treaty)을 체결했다. 이는 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한 군사동맹이다. 1985에는 비핵화지대(Nuclear freezone)을 선언하였으며 1987년 David Lange가 이끄는 노동당에 의해 뉴질랜드 비핵화지대 선언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핵추진함에 대한 뉴질랜드 기항불허로 이어져 ANZUS조약의 권리가 중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굴하지 않고 이후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비핵화선언인 라로통가 조약(Treaty of Rarotonga)을 체결, 2006년 기준 노동당(Labour Government)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총리는 야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의 지지도 함께 이끌며 뉴질랜드 비핵화지대(Nuclear-free zone)의 입지를 고수하고 있다.

□ 교육제도

1) 뉴질랜드 교육 제도

1877년 최초로 교육법을 제정,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이래 196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64)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만 5세부터 16세까지 전국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법상 최고의 교육행정 기관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이나 교육부는 국민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육행정지침 수립이 주요 업무이고 실제 교육행정은 각 지역 또는 교육 목적별로 설립된 해당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은 각 초·중등학교별로 교장,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Board of Trustees가 관장하는 강력한 교육 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교육제도는 영국식과 가깝다 할 수 있지만,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율적인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최대화하고, 인성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없으며 학생들은 자율적인 환경에서 교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공부한다.

2) 학제 및 교과 과정

가. 뉴질랜드의 학제

학교	나이	학년	YEAR	한국과 비교	비고
pre-school	만3세	유아원(PLAY CENTRE)			
	만4세	유치원(KINDERGARTEN)			
primary school	만5세	JUNIOR1	YEAR1	유치원	
	만6세	JUNIOR2	YEAR2	초1	
	만7세	STANDARD1	YEAR3	초2	
	만8세	STANDARD2	YEAR4	초3	
	만9세	STANDARD3	YEAR5	초4	
	만10세	STANDARD4	YEAR6	초5	
Intermediate	만11세	FORM1	YEAR7	초6	
	만12세	FORM2	YEAR8	중1	
Secondary school [college, highschool]	만13세	FORM3	YEAR9	중2	
	만14세	FORM4	YEAR10	중3	
	만15세	FORM5	YEAR11	고1	
	만16세	FORM6	YEAR12	고2	
	만17세	FORM7	YEAR13	고3	
Tertiary [college, highschool]	만18세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Polytechnics	14		
	만19세		15		
	만20세		16		
	만21세 이상		17이상		

나. 유아교육 [취학전 교육]

아이들은 출생부터 입학연령까지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ECE)에 참여할 수 있다. ECE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95%의 아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모든 ECE 서비스는 국가 커리큘럼 Te Whariki⁹⁾를 사용하여 학습을 계획한다.

9) Te Whariki는 뉴질랜드의 유아 교육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커리큘럼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목표로

3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는 하루 최대 6시간 일주일에 최대 20시간 무료로 ECE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20시간 ECE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 교육 (ECE)은 아이가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유능한 개인으로 발전하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운다.

우정을 쌓다

놀이 탐구하다

용감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

질문을 하고 말하다.

그들의 whānau 바깥 사람들을 만난다.

그룹의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노래하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한다.

생각하고 해결할 문제

교대로 협상하고 공유한다.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불일치에 대해 배우고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
단어, 숫자 및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운다.**

아이들, 어른들과 대화한다.

이해를 시작하고 주변 세계를 알아간다.

다. 초등학교(Primary Schools)

법정 의무 입학 연령은 6세이나 보통 5세부터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총 6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Junior 1~2, Standard 1~4)하며 Junior과정은 주로 읽기 교육에 치중하며, Standard과정에서의 수업내용은 영어, 산수, 사회, 과학, 음악, 체육, 건강 등을 배우게 된

다. 연간 수업일수는 반일 단위로 400일(400 Half Days)이고, 4개 학기(Term)로 구성된다. 제 1학기는 10주로 구성되며 매 10주후 2주간의 방학(Term Break)을 둔다.

라. 중학교(Intermediate)

Standard 4 과정이 끝난 학생들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중학교라 할 수 있는 2년 과정의 인터미디엣 스쿨(intermediate School)에 입학한다. Form 1~2 과정으로 불리는 이 과정은 뉴질랜드에서 만 11세에서 만 12세 사이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2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1학년의 학생들이 다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나이에 따른 입학은 교장의 재량이 큰 편이다.

교과과정은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미술 등이며, 초등 및 중등 과정 8년을 같이 제공하는 학교를 풀 프라이머리 스쿨(Full Primary School)이라 한다.

마. 고등학교(Secondary School)

만 13세부터 17세까지 5년간 교육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중학교 중간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에는 공·사립학교를 포함하여 5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보통 High School, College 또는 Grammar School이란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교과과정은 NZQA의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어서 모두 비슷하다.

3년간(Form 3-Form 5)의 과정을 이수하면 고급과정 진학을 위한 학사증명(School Certificate)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최소한 4개 과목 이상(최대 6개 과목)에서 합격점을 얻어야 계속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5년간의 전과정을 이수하면 고등 학사증명(Higher School Certificate)이 주어지고 대학입학 장학금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데, 원칙적으로 4년 과정(Form 6)만 이수하면 대학에 응시할 수 있으나, 5년 과정 이수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2002년도부터 Form 5 학생들에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시험제도인 NCEA(Nation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는 고교과정의 내신성과 대학 수학능력평가와 같은 외부시험 성적을 총괄하여 학업 성취인증서를 발급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로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성취도와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바. 고등교육기관

뉴질랜드의 고등교육기관(Tertiary)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는 과정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전문대학(Polytechnics and Private Tertiary Institutes), 종합대학교 및 사범대학(University and College of Education)이 있다.

① 전문대학

Form 6 과정을 마치게 되면 Polytechnics나 Private Tertiary Institutes에 입학할 수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며 현재 국민의 직업교육을 위해 설립된 25개의 국립 전문대학(Polytechnics)이 있다. 이들은 정부기금으로 조성되어지며 Certificate (수료), Diploma(준학사), Degree(학사) 과정 등 다양한 단계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학업기간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Degree 과정의 경우는 일반대학의 Degree 과정과 동급으로 취급되어 졸업 후 일반대학의 Post Graduate Diploma(준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Master Diploma(석사과정), Doctorate(박사과정)까지 이수 가능하다. 또한 Diploma 과정과 Certificate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의 Bachelor Degree(학사과정)와 Teaching Diploma(교직자 과정)에 편입하여 이들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종합대학교와 사범대학

8개의 종합대학이 대학별로 거의 전분야에 걸쳐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소재하고 있는 지역별 특성 및 전통에 따라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여타 대학보다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부를 갖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교사가 되기 위한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대학(College of Education)에서 실시하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관한 교직과목 학습을 할 수 있다. 일부 종합대학 과정을 교직 과목과 함께 추가로 수강할 수도 있고, 기존 교사를 위한 고급 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 한국과의 관계

뉴질랜드는 한국의 우방으로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16개국 중의 하나로 육군과 해군 5,350명이 영국 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1962년에 정식으로 수교하였고, 1971년 상대국 수도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78년에는 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9년부터 해마다 통상장관회담

이 개최되고 있고, 1980년 7월 양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3년 항공협정, 1994년 사증(Visa)면제협정, 1999년 취업관광사증협정이 체결되었다. 2002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1993년 5월 총리 J.볼저, 1999년 외교통상부차관이 내한하였다. 1978년 양국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따라 수산업체 4개사에서 트롤선·오징어 어선 등이 뉴질랜드에 진출하여 조업 중이나, 뉴질랜드의 어업정책이 쿼터 축소와 합작사업 증대 등 자국어업 육성을 꾀하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합작투자부분에서는 한·뉴필프합작회사가 설립되어 1978년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1982년부터 한국의 포니 승용차가 수출되었다. 양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협회를 비롯하여 한·뉴협회, 한·뉴의원친선협회, 한·뉴경제인협회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재뉴질랜드 교민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요 대한 수입품목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제품이고, 대한수출품목은 목재류, 축산물, 유기화학품이다.

1

Arrowtown Primary School(애로우타운 스쿨)

□ 방문목적

- 유보통합은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및 실천 방향성을 내재화하는 담론의 영향을 받아 방향성이 결정되어 왔음. 유보통합에는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에 특정 집단을 부각 시키거나 국제적 흐름 등의 거대 담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통합에 이르기 어려움.
-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주요 내용은 크게 ‘이해당사자’, ‘교원자격기준’,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추진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는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주요 구성원인 교사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과 해당 주체자인 교사의 관심 역시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보통합에 대한 개념과 주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 및 언급되고 있으나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 및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교사의 질”이 유보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유보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경우 중요한 본질과 흐름이 정치적, 정책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및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상향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내고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3. 3. 28.(화) 16:00 ~ 17:30
- 주 소 : 3 Reid Cres Arrowtown 9302
- 홈페이지 : <https://www.arrowtown.school.nz/>
- 면 담 자 : 학교장(Chris Bryant) 및 학교관계자

□ 연수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 증가와 교육 중심의 통합 면담

-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가 꾸준함에 따라 부모들은 교육 환경, 프로그램, 교육의 질, 교사의 자질 등에 대한 요구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음. 영유아들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적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뉴질랜드 국가 교육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후 일원화 체계로 전향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 질을 발달시키고 있음.
- 뉴질랜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해 교육으로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받을 권리, 무상교육, 교육과정에 기초한다는 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잘 교육받은 교원의 질 등의 정책을 집중

적으로 내세웠음.

- 뉴질랜드 부모들의 경우는 유아교육 인프라가 복지 분야에 비해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유아교육이 학교 교육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점 역시 교육중심 통합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질의답변

- 뉴질랜드는 교사의 질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교사 교육 기간과 교사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통합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 교사 교육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다. 대신에 그레이트 즉, 단계별 자격 수준이 달라진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은 한국 초등학교 개념이지만, 유아와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하다. 결국, 교사들의 채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유아와 아동들의 교육과 보육을 함께 이뤄나가고 있다.
- 교사 채용 방법이 한국과 다르다는데 ?
 - ⇒ 이곳에서의 교사채용은 학교에서 별도로 채용 공고하여 선발함.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학교장과 학부모대표 등이 선출함.
 - ⇒ 일정기간 평가를 통해 교사의 채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열심히 하는 편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 시사점

- 유보통합은 사회적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식 및 실천 방향성을 내재화하는 담론의 영향을 받아 방향성이 결정되어 왔음. 유보통합에는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에 특정 집단을 부각시키거나 국제적 흐름 등의 거대 담론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통합에 이르기 어려움.
-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주요 내용은 크게 ‘이해당사자’, ‘교원자격기준’,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추진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는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 주요 구성원인 교사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과 해당 주체자인 교사의 관심 역시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보통합에 대한 개념과 주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 및 언급되고 있으나 특히, “교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 및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교사의 질”이 유보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정부의 정책 역시 유보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경우 중요한 본질과 흐름이 정치적, 정책적 접근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정책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할 수 있음. 따라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및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상향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내고 추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방문사진



2

Casebrook Intermediate School(케이스브룩 중학교)

□ 방문목적

- 전북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 전북교육 운영방향」을 발표하며 도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연수와 국제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음
- 전북교육청은 도내 5개교를 국제교류 수업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그 성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교류 공동수업, 국제교류 연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례 발표를 진행함
- 2023년도 도내 초·중·고 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원년을 맞이하여 국제교류 수업 시범학교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되는 학생해외연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모색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3. 3. 29.(수) 09:30 ~ 10:30
- 주 소 : Casebrook Intermediate School, 90 Veitches Road, Christchurch
- 홈페이지 : <https://www.casebrook.school.nz/>
- 면 담 자 : 학교장(Sharon Keen) 및 학교관계자(tracy Goulden)
- 기관정보
 - 1943년 개교, 학생수(11-12세) 450명,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분 거리의 케이스브룩스지역 위치
 - 교육과정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섬유, 식품, 메탈, 목공수업 등
 - 교육활동은 오케스트라, 현악기와 플루트 앙상블, 합창단, 댄스그룹 등
 - 넓은 잔디운동장, 예능실, 식영양학 조리실, 목공예실, 학업자료실, 강당, 교내매점 등 다양한 학업지원 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음
 - 체력적으로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적인 스포츠 체육교육 분야의 과정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학기 중 일주일을 야외 학습 주간으로 선정하여 Year7 학생들에게 윈드서핑, 등산, 암벽타기 프로그램, Year 8 학생들에게는 3일간의 캠핑 프로그램을 진행함

□ 연수내용

- 2022년 10월 뉴질랜드 케이스브룩중학교와 전주자연초등학교 간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을 진행하였음.
- 애초 계획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였음.

-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 주제 프로젝트 수업을 양국 학생이 참여한 쌍방향으로 진행함.
 -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내 초·중·고 학생 약 2,500명(교육청 1,400명, 교육지원청 1,1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
 -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턴십으로 진행
 - 가. 해외 문화체험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차이 이해 및 상호 존중의 자세 함양을 위한 연수로,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00명(7~12월)을 대상으로 계획 중이며,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의식주, 풍습, 예술 등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견학
 -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견학·학습활동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690명(6월~12월)이 대상이며, 3월에 국제교류 수업 학교로 선정된 도내 41개 초·중·고 학교는 국제교류 수업에 참여한 학생 630명(6~12월)을 선발, 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
 - 다. 이외에도 교육청 사업부서에서는 사제동행 해외 역사체험에 고등학생 30명(7월), 장애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초·중·고 학생 30명(5월, 10월)을 4월 중 선발하고 해외연수를 시행할 계획
 - 라. 글로벌 캠프는 학생 맞춤형 심화 학습을 위한 해외연수로 과학·수학·발명 등에 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 80명(10월~12월)이 참여하며 글로벌 수학 캠프(고등학생 20명), NASA 글로벌 캠프(중학생 20명), 메이커 페어(Maker Faire, 초·중·고등학생

20명), 글로벌 기능 인재 연수(직업계고 학생 20명)로 구분돼 운영 예정

마. 글로벌 인턴십은 학생이 취업과 연계한 훈련 및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의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 실습과 경험을 쌓게 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며 교육청은 올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60명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6주간 조리·제빵·제과, 헤어미용, 자동차 정비, 용접, 원예조경 등의 분야 인턴십에 참여하게 할 예정

- 이외에도 14개 교육지원청에서 해외문화체험 등 20개 사업의 해외연수를 진행할 예정

【2023년도 전북교육청 해외연수 추진 계획】

연수 규모: 학생 2,471명(교육청 1,330명 / 교육지원청 1,141명)

주관	사업명	세부사업
도교육청 (1,330명)	해외 문화체험 (500명)	해외 문화체험 500명
	해외 현장체험학습 (690명)	교류수업 연계 현장체험학습 630명
		사제동행해외역사체험 30명
		장애학생문화체험 30명
	글로벌 캠프·인턴십 (140명)	글로벌 수학 캠프 20명
		NASA 글로벌 캠프 20명
		메이커 페어 20명
직업계고 기능 우수 학생 연수 20명		
직업계고 글로벌 인턴십 60명		
교육지원청 (1,141명)	해외문화체험 등 20개 사업	역사·문화체험, 어학연수 등 1,141명

□ 질의답변

- 케이스브룩중학교와 자연초등학교는 학교급이 다른데 학교급이 다른 기관을 매칭한 이유는 무엇인지?
 - ⇒ 애초에는 학교급이 같은 기관 간 교류수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교류 수업인 만큼 다양한 급 간 매칭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도출 하는게 시범학교 취지에 맞는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음.
-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 ⇒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표현하는 상호 간의 소통 문제가 가장 어려웠음. 또한, 인종이 다른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의사 표현에 주저함이 있었음. 하지만 수업 횟수가 거듭되면서 의사 소통에 자신감이 생겼고 수업에 집중도가 높아짐
- 국제교류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 대부분의 사업은 초기에는 적극적이고 활발히 추진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슨하고 안일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일도 있는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시사점

- 교류수업 초기에는 언어 전달의 어려움과 외국인과의 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업이 매끄럽지 못하였으나,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자신감이 생겨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늘었고 그

에 따라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다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은 진행하지 못하고 원격수업만 진행했던 부분이다. 교류학교를 방문하여 수업 과정에 참여하여 같은 주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다양한 방식의 대면 수업을 진행하여 많은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교육청의 2023년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보면 해외 문화 체험과 해외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연수를 계획 중에 있고 많은 학생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선발로 글로벌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어 향후 추진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도교육청 애초 취지에 부합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수 국가·주제별 사전교육과 ‘여행’이 아닌 ‘학습의 연장’으로 인식하게 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해외연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됨.
- 더불어, 연수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현장에서 습득한 다양한 사례를 교류하여 향후 진행되는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더욱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방문사진





3 Christchurch city hall(크라이스트처치 시청)

□ 방문목적

- 영·유아 교육과정 통합¹⁰⁾ 운영,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 부처 간 행정 업무 이전, 교사 자격제도 통합 등 유·보통합 사례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우리도 만의 유보통합 정책방향 제시
- 맞춤형 재정지원 서비스인 「20시간 ECE¹¹⁾」 보조금 제도와 부모 주도식 '놀이그룹(play group)¹²⁾'에 대한 사례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10)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

11) 교육·보육 기관에 다니는 모든 3~5세 아동(5세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들에게 일일 6시간 이내, 한 주에 20시간까지 무료 지원 서비스

12) 운영에 대한 면허를 없앤 대신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 하에 보조금 제공

수 있는 정책 제시

- 국제교류 수업을 위한 협력학교 네트워크·지원체계 구축 현황 점검 및 해외 교류·체험 기회 확대 방안 연구
 -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구촌 공동체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 필요성 부각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23. 3. 30.(목) 11:00 ~ 12:00
- 주 소 : 100 Kilmore St Christchurch 8013
- 면 담 자 : 시의원(Andrei Moore), 국제대외협력부 담당(Duncan Sandeman)
- 방문목적 : 유·보통합 이후 시청과 교육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 및 예산지원 현황 연구
- 기관정보
 - 뉴질랜드의 남섬 동쪽에 있는 캔터버리 지방의 주요 도시이며, 빅토리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에이번강 유역의 중심에 위치
 - 인구는 2021년 기준 392,100명으로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도시
 - 현재의 시청은 1972년 설립되어 시청 기능과 공연·예술의 2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현재 크라이스트처치 최고의 공연·예술 센터¹³⁾)
 - 145개의 학교가 있으며 약 59,000명의 초·중등 학생이 재학

13) 오케스트라 콘서트 및 연주회, 오페라, 발레 및 드라마 제작, 뮤지컬 코미디, 버라이어티, 포크, 록,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

- 학생의 약 77%가 공립학교, 15.5%가 주립 통합학교, 7.5%가 사립학교에 재학

□ 연수내용

-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교육과정 개정 등의 교육 변화에 발맞춰 학생 선택권 확대·학교 교육과정 다양화·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 교류·체험 기회 확대 필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뉴질랜드 지자체와의 소통
- 국제교류 수업 시범학교 방문을 통한 전북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전북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 질의답변

-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 먼저 국가에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가에서 하는 가장 큰 역할로 과거(전통)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단순히 한 가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영유아에게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발달 체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교육과정에 알맞는 규정을 정하고 제언해줌으로써 보육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가?
 - ⇒ 3~5세 유아에게는 주20시간 사용에 대한 보조금이 주어지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지원된다.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Level5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했는데 Level5부터 Level9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 ⇒ ECE학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Level7과정까지 이수하여야 한다. 소요되는 시간은 3년이며, 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Level5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6개월~1년이며 이는 온라인 학습만으로도 이수 가능하고, Level9까지의 과정은 총4년이 소요된다.
-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공적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영아부터 유아까지 연속성 있고 발달에 적합한 정책을 위해 영아기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단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전북형 유보통합 시범 어린이집-유치원을 선정하여 유보통합의 긍정적 효과 또는 한계점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이러한 유보통합 과정 안에는 부모의 의사결정 구조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현행 이원화된 구조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의 어느 구조에서 영유아에게 긍정적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결과인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 시사점

- 전라북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종사자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교육시스템의 보완할 수 있도록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유보통합을 이루기는 어렵다.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영유아교육보육과(가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을 지원 및 단계적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운영의 격차 및 교사의 연수지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함.

□ 관련사진



□ 방문목적

-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에서 계획 중인 한인문화센터 건립을 한옥으로 짓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대와 MOU를 체결하였고, 한옥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음. 한국을 뉴질랜드에 알리기 위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한인회의 그간 성과를 둘러보고 전북교육청 차원의 협력 방안 모색하기 위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3. 3. 31.(금) 13:30 ~ 14:30
- 장 소 : 크라이스트처치 홀스웰공원 내 한국공원
- 면 담 자 : 한인회장(메리 윤) 및 공원관계자
- 시설정보
 - 크라이스트처치 홀스웰 공원 내에 있는 한국공원에 장승, 석등, 돌하르방, 한국식 돌담 및 참전용사 기념 한국다리 등이 설치되어 있음
 - 2022년 6월에는 크라이스트처치-송파구¹⁴⁾가 함께 추진해온 수교 60주년 기념 및 캔터베리 지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한국식 정자¹⁵⁾를 준공함
 - 전북대와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의 한옥 기술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14) 크라이스트처치시 자매도시(1955년 협정 체결)

15) 정자 안 지붕 밑에 300명이 넘는 캔터베리 지역 참전용사 이름이 새겨진 명판이 걸려 있으며 주요 기부자들 명판도 설치되어 있음

-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에서 계획 중인 한인문화센터를 한옥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뉴질랜드 대사관, 전북대 등)

□ 방문사진



□ 방문목적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 사례 연구를 통해 전북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시
-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환경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교육정책 제시
- 유·초·중·고 통합교육 참관 및 자료수집과 사례 연구
- NCEA 제도와 운영(우리나라 고교학점제와 유사) 청취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3. 4. 3.(월) 11:00 ~ 12:30
- 주 소 : 131 Godley Road Green Bay AUCKLAND 1007
- 홈페이지 : <https://greenbay.school.nz/>
- 면 담 자 : 학교장(Anand Muthoo) 및 학교관계자
- 기관정보
 - 1973년 설립, 오클랜드 교외에 위치한 주립 남녀 공학
 - 1,400여명 학생 재학 중, 국제학생 40여명(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ESOL 프로그램 운영)
 - 수강할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고 교실을 이동해야 하는 뉴질랜드 학교 시스템이 낯설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버디시스템 운영
 - 학습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생물, 화학, 물리, 사회, 건강과 체육, 제2외국어, 예술 디자인, 퍼포먼스 아트, 음악, 그래픽, 건

- 축, 미디어, 역사, 관광, 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개설되어 있음
- 제2외국어로 불어, 독어, 일본어, 스페인어를 선택 가능

□ 연수내용

- 환경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 고교학점제 및 통합교육 사례 연구

□ 질의답변

- 환경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나요?
⇒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환경이다. 깨끗하고 정갈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필수적이므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 성공적인 환경교육 사례는 무엇인가요?
⇒ 개발이 아닌 보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뉴질랜드 자연환경을 잘 살펴보면, 보전해가면서 공존하고 있다. 모든 것이 자연적인 환경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있나요?
⇒ 스카웃 활동을 통하여 지키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방학기간이 아니더라도 교육 커리큘럼에 환경을 지키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만 한다. 후손을 위하여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있다.
-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교육을 실천하는 사례가 있나요?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환경보전을 위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학교장의 정년은 몇 살인가요?

⇒ 사회복지법에 따라 유동적이나 딱히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따라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근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60-65세 사이에 정년을 하고 있다.

○ 초등학교 주당 수업시간은 몇 시간인가?

⇒ 주 5일제수업으로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8시간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우리나라 평균 25시간정도), 임용 후 1년 차 교사는 일주일에 하루를 수업 연수일(선배나 Team Leader교사 또는 교육부 파견 연수지도사가 수업에 대한 지도를 해준다)로 쓰고 2년차 교사는 격주로, 3년차 교사는 3주에 하루, 4년차 교사는 한 달에 하루를 연수일로 받아 수업시수가 적은 편이라고 한다.

○ 3시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가?

⇒ 모든 수업이 3시에 끝나면, 학생 혼자 귀가를 하지 않고, 부모들 중 1명이 꼭 데리러 온다. 사회분위기가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아이 하교시간이 되면 보내주게 되어있다. 만약 늦거나 못나올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하여 돌봄(care)을 요청하면 돌봐준다.

○ 입학식은 언제 하는가?

⇒ 만 5세 생일이 되는 날에 Primary School에 간다. 동네마다 가까이 초등학교가 있으며,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식이 없고 만 5세가 되는 자기 생일날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해서 만 5세에 Year 1을 시작해서 Year 6까지 Primary School에서 공부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 한국처럼 연 4회이상 회의 실시하는 것처럼 소극적이지 않고, 수시로 학교 운영회의를 갖고, 교사임용, 교육과정운영, 학교행

사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이곳에는 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

⇒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은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 학생에게 맞는 적절한 식사는 학부모가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알레르기 예방등) 우유 등은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음.

⇒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다문화 국가이므로 다양한 식성을 고려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학구가 지정되어 있는지, 통학버스는 있는지 ?

⇒ 이곳에도 학구는 지정되어 있음, 우수한 학구로 지정받기 위해 이사도 하고 있음. 통학버스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정도 거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함.

○ 교사 임용은 어떻게 하나요?

⇒ 한국처럼 해당 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선발하여 일정 학교에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교장, 교직원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Board of Trustee’(학교운영위원회)가 선발과 임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oard of Trustee에서는 결원이 있는 경우 교원임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교사의 충원이 필요한가를 확인하고, 어떤 직책의 교사가 필요하며, 그 직책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과제와 의무 및 책임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과 자격 및 경험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 학교 홈페이지, 교육관보, 교육신문 또는 전국적인 일간지에 광고를 내게 된다. 지원자들은 지원서와 2명 이상의 교육관련 인사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하고 교원임용위원회에서는 지원서와 추천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2-3배수의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고 면접위원과 지원자가 참가하는 공개좌담회(panel)형식의 면접을 시행한 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적격의 교사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선발 임용하게 된다고 한다.

□ 시사점

-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도의 환경은 전세계의 환경과 같은 것으로 미래 지구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전라북도 환경교육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환경교육은 실생활 환경실천 교육이 준비되어야만 할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환경교육이기 때문이다.
- 지속가능발전적 환경교육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간의 교육과 관련하여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방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교육현장의 교사들과 협동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일정과 교육방향에 적합하게 캠페인적 환경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교육과 연계된 환경프로그램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사진



그린베이 스쿨

1. 전라북도 출산율 및 영유아 수 추이

1. 전국 출산율과 전라북도 출산율 추이

-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며 주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됨.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 출산율이 되는데 이 경우 전체 여성 수는 미혼, 기혼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혼인이 출산의 전체 조건으로 작용하는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떨어짐.
- <표 1>을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음.
-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합계 출산율 평균은 1.097명,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 평균은 1.223명으로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0.12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출산율과 전라북도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과 전라북도 출산율이 모두 소폭 상승함. 그러나 2013년에 전국 출산율은 전년대비 0.12명이 전라북도 출산율은 전년대비 0.11명이 감소.
- 2013년 출산율 감소 이후 2015년까지 전국과 전라북도 출산율은 둘 다 전년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전반적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합계 출산율은 0.808명,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0.850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에 비해 전라북도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 합계 출산율과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 모두 하락 추세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1> 전국 출산율과 전라북도 출산율

년도	전국 합계 출산율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
2006	1.132	1.213
2007	1.259	1.380
2008	1.192	1.305
2009	1.149	1.279
2010	1.226	1.374
2011	1.244	1.405
2012	1.297	1.440
2013	1.187	1.320
2014	1.205	1.329
2015	1.239	1.352
2016	1.172	1.251
2017	1.052	1.151
2018	0.977	1.044
2019	0.918	0.971
2020	0.837	0.909
2021	0.808	0.850
2022(2분기)	0.75	

자료 : 통계청자료(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2) 발췌

2. 전국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영유아 수 추이

-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합계 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영유아 수의 경우 그 감소 폭이 점점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2016년 이후 전라북도 영유아 수 역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국 영유아 수 감소 폭에 비해 전라북도 영유아 수 감소 폭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전국 합계 영유아 수는 1,937,651명, 전라북도 합계 영유아 수는 59,359명으로 나타나 전국 영유아 수의 3.0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전국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영유아 수

년도	전국 합계 영유아 수	전라북도 합계 영유아 수
2010	2,725,135	
2011	2,759,816	
2012	2,777,812	
2013	2,774,066	
2014	2,741,309	
2015	2,741,321	
2016	2,647,419	89,026
2017	2,536,879	83,805
2018	2,390,711	77,606
2019	2,257,728	71,692
2020	2,107,481	65,755
2021	1,937,651	59,359

자료 : 통계청자료(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C1601)발췌

- 이는 전국 17곳의 광역자치단체(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수 중 3.06%가 전라북도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임을 의미함.

2.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교직원(추이) 및 이용가구 추이

1. 전국 유치원 개소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¹⁶⁾

<표 3> 전국 유치원 개소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

년도	전국 유치원 개소 수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
2006	8,290	516
2007	8,294	514
2008	8,344	512
2009	8,373	512
2010	8,388	512
2011	8,424	516
2012	8,538	523
2013	8,678	523
2014	8,826	526
2015	8,930	530
2016	8,987	532
2017	9,029	536
2018	9,021	531
2019	8,837	519
2020	8,705	507
2021	8,660	507
2022	8,562	501

○ <표 3>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원 개소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

16) 전국 유치원 및 전라북도 유치원 자료는 모두 통계청 자료서 발췌

원 개소 수는 평균 8,640곳,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 평균 519곳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가 전국 유치원 개소 수의 6%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국 대비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전국 유치원 개소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2015년에서 2017년에 유치원 개소 증가율이 소폭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2018년부터 전국 유치원 개소는 소폭 하락해 2022년에는 2012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즉, 전국 유치원 개소 수가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다 201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전라북도 유치원 개소 수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

- <표 4>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 평균은 607,624명으로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 평균은 21,768명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가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의 3.58%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4> 전국 대비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는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6년을 기점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결국,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는 2010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유아수가 증가하다 2016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는 20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

년도	전국 유치원 영유아 수	전라북도 유치원 영유아 수
2006	545,812	19,743
2007	541,550	19,320
2008	537,822	18,834
2009	537,361	19,130
2010	538,587	19,677
2011	564,834	21,057
2012	613,749	22,250
2013	658,188	23,266
2014	652,546	23,296
2015	682,553	25,059
2016	704,138	26,389
2017	694,631	25,768
2018	675,998	24,297
2019	633,913	22,025
2020	612,538	21,188
2021	582,572	20,022
2022	552,812	18,740

3.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 <표 5>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교직원 수 평균은 45,554명,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평균은 2,001명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가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의 4.40%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년도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2006	32,096	1,454
2007	33,504	1,507
2008	34,601	1,518
2009	35,415	1,575
2010	36,461	1,658
2011	38,662	1,748
2012	42,235	1,857
2013	46,126	1,941
2014	48,530	2,021
2015	50,998	2,125
2016	52,923	2,255
2017	53,808	2,468
2018	54,892	2,421
2019	53,362	2,358
2020	53,651	2,437
2021	53,457	2,370
2022	53,696	2,298

- <표 5>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추이를 살펴 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역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직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따라서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는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전국 유치원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유치원 교직원 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교직원(추이) 및 이용가수 추이

1.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 <표 6>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 평균은 37,468곳,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평균은 1,446곳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의 3.86%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6>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는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22년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는 지난 2007년 수준까지 감소.
-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역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해 오다 2015년부터 점차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점차 감소해 2022년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는 1,022개까지 감소,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는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의 1/3정도의 규모에 해당.
-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와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는 모두

2014년까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전국과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와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년도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2009	35,550	1,506
2010	38,021	1,531
2011	39,842	1,580
2012	42,527	1,620
2013	43,770	1,647
2014	43,742	1,654
2015	42,517	1,623
2016	41,084	1,562
2017	40,238	1,497
2018	39,171	1,397
2019	37,371	1,288
2020	35,352	1,195
2021	33,246	1,115
2022	30,936	1,022

자료 : 통계청 전국 어린이집 개소 수, 전라북도 어린이집 개소 수

2.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 <표 7>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 평균은 1,328,934명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평균은 58,133명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의 4.37%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7>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추이를 살

펴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2022년에 다시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로 돌아섬.

<표 7>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년도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2006	1,040,361	54,975
2007	1,099,933	55,950
2008	1,135,502	55,978
2009	1,175,049	55,619
2010	1,279,910	56,531
2011	1,348,729	57,114
2012	1,487,361	60,401
2013	1,486,980	59,050
2014	1,496,671	58,328
2015	1,452,813	73,738
2016	1,451,215	53,798
2017	1,450,243	52,105
2018	1,415,742	66,016
2019	1,365,085	62,327
2020	1,244,396	59,314
2021	1,184,716	55,361
2022	1,477,168	51,661

자료: 통계청,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역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3년과 2014년에 잠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나 2015년에 영유아 수가 다시 증가,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그 수가 감소 혹은 증가를 반복함.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51,661명,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1,477,168명에 이르러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의 3.5% 수준임.

-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와 전라북도 영유아 수는 모두 지속적 증가 추세 이후 감소 혹은 증가 식으로 그 변화가 유동적임. 그러나 전국 대비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 변화는 전국의 경우가 전라북도의 경우보다 증가와 감소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 영유아 수가 변화하는 정도에 비해 전라북도 어린이집 영유아 수의 변화는 비교적 감소 혹은 증가의 폭이 작게 나타남.

3.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 <표 8>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임.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평균적으로 276,178명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평균적으로 10,682명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가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의 3.87%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8>의 전국 대비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점차 증가해 왔음, 이후 2019년부터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310,924명에 이룸.

<표 8>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년도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2006	156,306	8,163
2007	169,585	8,201
2008	191,103	9,171
2009	206,912	9,502
2010	229,084	9,916
2011	248,635	10,489
2012	284,237	11,483
2013	301,719	11,888
2014	311,817	12,114
2015	321,067	12,331
2016	321,766	12,005
2017	330,217	11,890
2018	333,419	11,742
2019	331,444	11,185
2020	325,669	10,907
2021	321,116	10,650
2022	310,924	9,953

자료: 통계청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역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2016년부터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가 감소해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9,953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 규모는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 규모의 3.2% 정도에 해당.
-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와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모두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 전국 어린이집 교직원 수의 경우는 2019년부터, 전라북도 어린이집 교직원 수는 그보다 이른 2016년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섬.

4.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 <표 9>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변화 추임.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전국 유치원 이용률은 평균 40.4%로 나타났으며,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44.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유치원 이용률 보다 4.2%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표 9>의 전국 유치원 이용률 및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유치원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 2019년에 전국 유치원 이용률이 전년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그 이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유치원 이용률은 최대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와 달리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40% 이상을 유지해 오다 2019년에 이용률 49.8%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하였고 이후 2021년에는 이용률이 60.7%에 까지 이룸.
- 전국 유치원 이용률과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전국 유치원 이용률은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이용률이 낮아진 반면,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년대비 7%이상 어린이집 이용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9> 전국 유치원 이용률과 어린이집 이용률

년도	전국 유치원 이용률(%)	전국 어린이집 이용률(%)
2008	32.9	42.7
2009	39.6	42.4
2010	39.0	41.6
2011	40.0	42.0
2012	43.5	42.8
2013	47.2	43.4
2014	46.7	42.9
2015	47.7	40.4
2016	50.0	42.5
2017	50.6	42.4
2018	51.0	42.7
2019	23.2	49.8
2020	23.8	48.4
2021	29.9	60.7

자료 :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발췌,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1

유보통합

- 국내외적 유아교육 및 보육(ECEC)의 정책적 방향으로 보았을 때, 유보통합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 및 연속적인 정책을 위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유보통합 시,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갈등 상황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참여 등의 과정들이 긴요함.
 - 재정 지원 :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수반되며, 재원 조달이 유보통합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정부는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거나 우선순위로 배정 하는 등의 지원이 요구됨.
 - 교육과정 :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 놀이에 기초한 교육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 반면 학업 준비를 우선시 할 수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된 교육과정 안에 STEM 과목이나 사회 정서 학습과 같이 어떤 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학부모를 포함한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과정이 요구됨.
 - 교사 자격 : 양질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려면 전문성 있는 교육과 이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사가 요구됨. 그러나 영유아교사 자격요건이 너무 낮고, 교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만연함.
 - 부모의 참여 : 정부가 공적으로 일차화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부모의 1차적 책임의식 및 부모의 역할

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적 민감성과 다른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임.

- 접근성 : 정부는 모든 가정,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농어촌 등의 지리적 위치, 소득 및 다문화 가정 등의 언어 장벽 등도 고려한 접근성이 필요함.

○ 또한, 현재까지 유보통합 논의의 관점이 대부분 “유아”로 집중되어 향후 유보통합 시, “영아”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은 어떠한 접근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깊은 논의가 요구됨.

- 영유아를 위한 유아 교육과 보살핌을 통합하는 것은 그들의 발달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며, 이 대상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될 것임. 영유아기 중에서도 영아기는 초기 발달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양질의 보육이 제공되어야 함.
- 더불어 영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양질의 보육제공을 위한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도록 해야 함. 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에는 영아발달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이는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으로 이어져야 함.
- 영아기에 요구되는 일상적 양육과 함께 건강 및 영양 서비스에 대한 보육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가 있는 식단 및 간식 등을 집중적으로 노력해 볼 수 있음. 또한 조기 개입 서비스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또는 장애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선별 및 평가 서비스, 언어 치료 및 작업 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더불어 영아교사의 전문성이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교사로서 인정 및 존중되는 사회적 인식 또한 필요함. 그 밖에도 기관보육 외에 영아기의 가정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의 참여를 장려하는 보육프로그램, 자녀 발달에 대한 정기적 상담 등의 육아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음. 이러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양육 전략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으며, 가정 방문 프로그램 및 가족 지원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음. 영아는 유보통합 관점에서 기관에서의 보육 및 교육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도 그 대상안에 포함 시켜야 될 것임.

- 전반적으로 영아를 포함하여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 영유아의 발달 및 복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ECEC)의 접근 방식이 필요함. 영유아의 돌봄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애 가능한 최상의 출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임.

○ 전라북도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을 때도, 유아교육 및 보육의 격차 중 가장 주안점은 법과 제도, 물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영아·유아 모두가 차별 없이 유아교육 및 보육(ECEC)을 보장 받아야 함.

○ 따라서, 유보통합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격차 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주요 방법과 절차 및 정책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유보통합 정책의 주요 방법과 절차

통합 방법	통합 절차
하나의 부처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해관계자의 소통 증진 및 합의 도출	① 법·제도의 통합 ② 물리적 환경의 통합 ③ 재무회계 규칙의 통합 ④ 영아와 유아의 보육 및 교육과정 통합 및 연계 ⑤ 영유아 자격 양성과정의 통합

○ 유치원은 교육 중심, 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은 사실상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동일하지만, 학부모는 이 둘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유치원은 보육과 초등학교 입학 전 또래 생활을 경험 및 습득할 수 있는 곳이며 어린이집은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임.

○ 과거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최근 두 기관의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 같음. 그러나 이원화된 시스템은 여전히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 시키면 교육과 보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 앞으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분리해서 운영할 경우 이 둘의 차이가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내용 등을 아이들의 연령 및 아동 발달 수준에 맞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종사자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교육시스템의 보완할 수 있도록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보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움.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통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통합부서 신설

- 시·도교육청 내에 '영유아교육보육정책과(가칭)'을 신설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을 지원 및 단계적 안정화를 도모함.
-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운영의 격차 및 교사의 연수지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함.

- 통합부서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와 연수, 컨설팅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래의 기능은 강화하되, 중복기능을 점진적으로 병합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됨.
-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국가에서 교사 1인당 아동의 평균 비율은 국가 및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각각 다르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의 권장 비율은 3~4명당 교사 1명, 3~6세 아동의 경우 권장 비율은 8~10명의 어린이당 교사 1명으로 보고됨.
- 실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특정 프로그램과 국가 정책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국가에서는 각 어린이에게 더 많은 개별적인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 비율이 더 낮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예산 제약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비율이 더 높을 수 있음.
- 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비율은 유아교육 및 보육(ECEC)의 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 요소로, 교사 자격, 교육과정, 교실 환경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북형 유보통합 추진 시 영아부터 유아까지 연속성 있고 발달에 적합한 정책을 위해 영아기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낮추는 단계적 노력이 요구됨.
-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전북형 유보통합 시범 어린이집-유치원을 선정하여 유보통합의 긍정적 효과 또는 한계점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 안에는 부모의 의사결정 구조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현행 이원화된 구조와 일원화된 통합 시스템의 어느 구조에서 영유아에게 긍정적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결과인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요구됨.

2

NCEA 제도와 운영

- “Life is C between B and D”라는 말이 있음. 인생은 태어나면서(Birth) 죽을 때까지(Death) 선택(Choice)의 연속이라는 의미임.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키워드도 ‘선택’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교학점제 적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임. 이에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을 찾고자 뉴질랜드 학업성취 인증제인 NCEA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음.
 - 첫째, 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어야 함. NCEA의 레벨은 고등 교육기관, 즉 전문대학인 폴리테크닉(level 2이상)이나 종합대학인 유니버시티(level 3 이상)의 진학 시 사용됨은 물론 일반 기업의 채용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중학교 3학년 2학기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이음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둘째, 교육 격차 축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Year 11에 NCEA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세 영역의 절대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함. 하지만 모국어로서의 영어 사용 여부, 디지털 기기 접근 및 활용 능력의 다양성, 부모의 경제적 능력 차이로 인해 특정 그룹의 학생 미도달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됨. NCEA 과정에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은 진로 선택의 한계로 이어질 수 있음. 전라북도에도 다문화학생 비율 증가, 시내와 농어촌 학생 수의 양극화 등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지역 학생들의 소수 학생 선택 과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셋째,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핀셋 지원이 필요함. 뉴질랜드에서 평가 결과가 미도달(NA, Not Achieved)인 경우 해당 학점을 얻지 못함. 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을 위해서 개인 지도(tutoring), additional classes(보충 학습), study groups(그룹 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과목별 최소성취기준에 관한 연구, 출석률(수업 횟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보충 과정 방법에 대한 현장과의 조율이 진행 중에 있음. 여기에 학생의 코스를 모니터하여 학점 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 진행, 코스 패스를 위한 학교 밖 과정 개발 등의 전담팀을 학교에 배치하여 교육과정 단계별로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캐나다 오타와-칼튼 교육청의 대책도 눈여겨볼 만함.
- 넷째, 뉴질랜드의 NCEA와 NZQF(자격 프레임워크)의 투트랙과 같은 고교학점제와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 디지털

교육인증제) 병행 도입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함. NCEA의 효용성은 대학과 기업에의 광범위한 쓰임으로 판단할 수 있음. 뉴질랜드의 학점은 대학과 기업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격을 인증해주는 NZQF의 체제와 일원화되어 관리됨. 우리나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배지 도입 의사를 밝힌 후 에듀테크 학계에서 관련 표준안 도입을 위한 환경 분석 중에 있음. 전라북도 교육은 에듀테크 기반 조성의 1단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의 2단계를 지나고 있음. 여기서 더 나아가 개인의 교육과정 디지털 학습 이력이 블록체인에 저장·관리되어 진학과 진로에 연결되는 생태계가 구현된다면 그것이 에듀테크의 최상위 모습일 것임.

영국 속담에 ‘편안한 바다는 결코 훌륭한 항해사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혁신의 길목에서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을 중심에 두고 미래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 겪어야 할 파도라면 견뎌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환경교육**

- 기후위기·환경재난 시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능동적 전환과 혁신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능력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의 강화가 필요함.

- 전라북도 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인간과 환경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는 생태적 전환의 장으로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소양을 함양하게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교육과정 기반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환경교육 강화와 활성화로 생태감수성을 갖춘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으로 모두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임.
- 도내 학교의 일상을 생태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의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생태적·친환경적으로 구성하고 교육구성원의 생태적 전환 역량 강화하여야 함.
- 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과 인식의 변화를 위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추진되어야 함.
- 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력과 연계를 통한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환경교육의 지지 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

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3.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절약, 저탄소 녹색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교숲과 텃밭 가꾸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측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라북도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환경 관련 용어의 정리

환경	인간을 비롯한 생물을 둘러싸고 있으며 생물이 살아가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
생태	자연의 기본이 되는 생명체의 집단이 생존을 유지해가는 데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
기후변화	갑자기 더워지고, 추워지고,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등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과 인간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물리적 환경 자체를 조절함으로써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적응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자극과 기후 자극의 효과에 대응한 자연, 인간 시스템의 조절작용.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기회로 삼는 행동 또는 과정을 포괄함
지구공동체	전 지구를 아우르는 공동체. 인류를 공동체로 보고 식량·자원·인구·빈곤 문제 따위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제안된 개념
ESG	<p>`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음</p> <p>→ 학교도 작은 사회이자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기여의 의무가 존재하므로 학교의 ESG 방향으로의 운영과 ESG 관련 교육이 필요함</p>
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
환경학습권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시대에 환경에 대한 알권리와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권리(환경권과 학습권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권)
환경교육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
생태교육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인류가 자연과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를 탐색하는 교육
생태전환교육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
기후변화교육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리, 원인과 영향, 완화와 저감 등의 대응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후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탄소중립교육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은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에 의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교육 진행. 사회환경교육은 주로 민간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교육
탄소중립 실천학교(급)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고 학교 문화의 생태적 전환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중점으로 운영하는 학교(급)
생태시민 (전북교육청 용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연과 사람과 공존하며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지방 유지팀			
지위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조차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서나식			

【요청사항 제안 배경】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현장유치팀			
지위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조차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김수준			

【요청사항 제안 배경】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현장유치팀			
지위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조차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김주희			

【요청사항 제안 배경】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행정지원 직원지원			
지위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조차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김희정			

【요청사항 제안 배경】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정보관리지원팀			
지위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조차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김민서			

【요청사항 제안 배경】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관리지원 직원지원			
지위	<input type="checkbox"/> 팀장	<input type="checkbox"/> 조차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김지연			

【요청사항 제안 배경】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도입되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아교육 관계자 및 어린이집 의견수렴>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호원대학교부속 유치원
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small>의정직위 □에 √ 체크 해주세요</small>
성명	허미화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1. 정책 방향에 있어, 원천부상교육의 기반 확대와 다양성의 차질상을 존중하는 공교육 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영유아교육의 분절된 유아교육-유치원실 교육 기조를 이어가는 영유아교육 체계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영입의 연속성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과 돌봄을 포괄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단계별 방안:
 - 1) 유보통합 준비기에는 영유아양육체계 기반 유보통합 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교육과 돌봄과 복지를 포괄하는 교육부와의 부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2) 유보통합 준비기에는 원천부상교육 기반 재정 확보 및 인력직 운영, 영유아교육 체계 기반 통합 및 교사관련 임금이 정비되어야 한다.
 - 3) 유보통합 완성기에는 교육과 돌봄을 포괄한 단일교사의 비담임 교사 자격제도를 필요로 하므로 4년제 학위 중심의 영아교사나 유아교사 실험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호원대학교부속유치원
지위	<input type="checkbox"/> 원장 <input type="checkbox"/> 교사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small>의정직위 □에 √ 체크 해주세요</small>
성명	최성운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 유보통합은 교육부 단일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단일인 어린이집의 통합을 의미하며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도록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는 보호 또는 학습용으로 이분과 되어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과 보육의 발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만일 부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다른 상황에서 실행추체가 국공립과 사립, 민간으로 다시 구분되어 행정체계나 실행추체의 차이는 유지함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유지, 실행추체에 따른 차이 외에도 권위체계, 지원, 교사 자격 등 그 차이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올.
- 0-5세 전제를 대상으로 교육의 입과 돌봄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린 서로 다른 주체에 따른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 및 시시점 조출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유보통합의 목적이 어떤 의미 단계의 지속될 것인지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입할 의미에서 교육과 돌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이원화 된 행정체계 각 실행추체별 원천 정책 및 사업제도, 사립의 현실에 대응 비교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새책 유치원
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small>의정직위 □에 √ 체크 해주세요</small>
성명	원장 : 김지은 / 교사: 임환정 / 학부모: 김미한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 원장 :**
 유보통합에는 교사 양성-처우, 예산 등 여러 문제가 복합하게 얽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전공과 관계 없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저우도 어린이집 교사보다 유치원 교사가 좋습니다.
 이러한 상충을 사전에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실행되면 입원하고 불니다.
 현장에있는 유치원원장님들의 소회를 듣고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교사 :**
 교사의 자격부의 구체적으로 확충이 다뤄야 합니다.
 사립이 위상은 폐지하고 방송통신대는 유지하며, 보육교사교육원은 승급교육기관포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인입과인 통합 자격이 필요하고, 과정 학과제로 통일하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원 저우는 유지할 수준으로 균일하게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강제 및 학력에 따른 자율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부모 :**
 모든 학이에게 동일한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보통합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아동 수의 급증으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어려운 시기 행정이 밀려나가는 것은 바라는 바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잘 키우기 위함은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 의견 제안서

소속	솔밭어린이집
지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교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small>의정직위 □에 √ 체크 해주세요</small>
성명	한OO, 정OO, 박OO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 원장 의견**
1. 교육부에서 주관
 2. 유치원운영비와 인건비지급
 3. 사립유치원은 확립한 사유재산 보장하며 유보통합
 4. 학원이나 연맹구분(초지원은 사립교육이 다름)
- 학부모 의견**
1. 국가교육책임제에 대한 인식의 모든 내용은 전국 교육부 교육감까지
 2. 특수아동 배려 지원 마련 후 유보통합
- 교사 의견**
1. 인입 통틀 전달교사 배치 후 유보통합
 2. 운영비에 지원금을 통해 지원 수월이 필요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호교사 지원 및 지원 후 유보통합



유보통합을 대비한
유아교육·보육관계자 의견수렴

연번	이름	소속	의견
1	김효진	영동유치원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영유아를 위한 예산이 중요
2	유인애	학부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업 시간도 길어야 함
3	유기영	영동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4	이재용	학부모	교육과 교육 인력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좋은 교육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5	유수영	영동유치원	각 기관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는 교육자 확보
6	김영숙	학부모	무급보육 수당이 포함된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
7	박유진	영동유치원	영유아 수업을 포함한 수업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이 필요함
8	박영진	학부모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유능한 교사 확보
9	김연희	영동유치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유능한 교사 확보
10	김영남	학부모	좋은 보육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하며 유급
11	박지은	영동유치원	현장업무와 교사연수교육이 지원될 때 다양화되면 좋음
12	노기연	학부모	직업과 보육업이 융합되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3	김영희	영동유치원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여 다양한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14	최영숙	학부모	교육 및 시설 지원이 충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길
15	김희서	영동유치원	현장업무와 교사연수교육 지원 제공을 위해 유아교육자 지원이 필요함



유보통합을 대비한
유아교육·보육관계자 의견수렴

연번	이름	소속	의견
1	김재현	한국유치원	연말이 가까워지기 전에 영유아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
2	최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3	박수영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4	김민희	학부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5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6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7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8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9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0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1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2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3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4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5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유보통합을 대비한
유아교육·보육관계자 의견수렴

연번	이름	소속	의견
1	최지연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2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3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4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5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6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7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8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9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0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1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2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3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4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5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6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7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8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9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20	김민희	한국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유보통합을 대비한
유아교육·보육관계자 의견 수렴(이리유치)

연번	이름	소속	의견
1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2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3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4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5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6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7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8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9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0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1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2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3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4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5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6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7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8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19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
20	김민희	이리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교육받을 것이 (교사) 지원